

download



Viabizzuno

reproduction of any text or image is forbidden unless authorized
승인 없이는 어떠한 텍스트 또는 이미지의 복제도 금지합니다

in copertina on the cover:
sulwhasoo, seoul, korea
italiano/english

표지 표지:
설화수, 서울, 대한민국
이탈리아어/영어

printed on paper that contains fibers from
forests managed in a responsible manner
free copy at the reasonable price of €2

cod. GR.002.38.IT

섬유를 포함한 종이에 인쇄
책임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산림
€2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료 사본
cod.GR.002.38.IT



공간의 자극 **the excitement of nothingness**

현대 건축의 한 거장은 쇼핑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공공 활동의 영역일지도 모르며, 쇼핑은 도시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장악하고, 심지어 대체하는 방식으로 점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에서 학교, 그리고 병원에서 인터넷까지 - 소비 모델과 그 메커니즘은 모든 유형의 공간에 존재한다. 박물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사실, 면밀하게 살펴보면, 상업 공간과 전시 공간 사이의 유사점은 훨씬 깊고 확실하게 존재한다: 두 유형 모두 점점 빈번하게 동일한 사업자의 의뢰로 착공되며 동일한 디자이너에 의해 설계된다. 그로 인해 유사한 성능 기준과 품질 규격이 적용되어 그 결과, 유사한 요구 사항들이 재기된다. 어느 때보다 국제적인 지금의 글로벌 시대에 이러한 요구 사항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까다로운 대중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착공되는 공간에 대한 접근 방법이나 공식적인 언어 및 구성 요소의 일치가 불가피하게 요구될 수 밖에 없다: 박물관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금 시대에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하나 잊어서는 안될 점은, 누군가는 처음으로 약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소비 공간의 전형적인 요소란 여러 층의 건물들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만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박물관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대형 패션 브랜드들이 브랜드 아울렛에서 자신의 브랜드 이름을 사용하여 소통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다. 박물관숍은박물관성패에큰영향을미치는데,왜냐하면쇼핑경험이방문경험을증가시키며,박물관방문을물건의구매로마친경우 이러한 경험은 지속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과 감정으로 남게되기 때문이다. 또한, 쇼핑은 더이상 단순히 구매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점점 커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형태를 지양하고 있다. 최근에는 쇼핑의 즐거움이 소비의 즐거움을 넘어섰으며 레크레이션 차원에서 쇼핑이 더욱 문화적이고 감정적인 관행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한 구매 유형은 매우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적 접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매장에 가는 행위 자체가 소비의 즐거움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윈도우 쇼핑과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레크레이션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소비 공간은 적절한 밝기가 유지되도록 고안되어, 전시된 아이템의 가치를 높이고 상품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박물관과 완전하게 동일한 방식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현대의 상업 공간과 전시 공간은 17 세기의 플랑드르 화가들처럼 빛을 사용하고 있다: 일상의 물건과 몸짓을 희미하고 조용한 환경에 담아 창조하고, 그것을 우아하고 매혹적인 분위기의 조명으로 승화시킨다. 예를 들어 베르메르의 우유 따르는 여인과 같은 그림을 주의 깊게 살펴 보면, 햇빛이 어떻게 왼쪽의 창문에서 들어와 집 안을 적나라하게 비추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깨진 창문에 의해 겹손한 분위기는 고조되며 그 곳을 통해 여과되어 들어온 더욱 강렬한 빛은 여인의 풀먹인 머릿수건을 밝혀준다. 색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의 시작을 마술처럼 표현하는, 그 발광 지점은 관찰자의 눈을 불가항력으로 끌어 당긴다. 정물은 생명력이 깨진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의 생명력 덕분에 그 때의 찰나에 머뭇고 동시에 영원으로 남겨지게 된다. 빛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이다. 언어를 공유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풍경과 도시, 그리고 빌딩과 인테리어, 물건들이 가진 형태와 외관과 색상을 발견하여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을 알리고 이해시키며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빛 없이는 어떠한 시각적 형태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빛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는 방법을 좌우한다. 특히 상업 장소 및 전시 장소에서의 조명은 이미지와 색조, 질감 그리고 디테일을 정의한다.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물들의 특징적인 차이점을 파악하여 무엇을 보고 있는지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을 담당하며, 판매 중인 물건이나 전시되고 있는 작품에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꿈과 욕망을 반영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감상하도록 도와준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꿈을 꾸지만 빛 속에 살기 때문에.

one of the masters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declared that shopping is probably the last remaining type of public activity and that it has become part of almost every aspect of city life, taking it over and even replacing it. from airports to schools and from hospitals to the internet - the retail model and its mechanisms have adapted to every type of space. museums are certainly not an exception to this. as a matter of fact, on closer inspection, the similarities between commercial and exhibition spaces are a lot deeper and more established: both typologies are more and more frequently commissioned by the same business people and designed by the same designers. similar requirements are met as a result of similar functional criteria and quality standards and in response to an ever more cosmopolitan, knowledgeable and demanding public. it is therefore inevitable that there should be a coincidence of approach, formal language and construction elements: nowadays it is of no surprise that a museum should be equipped with an escalator, and yet it must not be forgotten that the first to have one caused a stir because a typical element of retail areas was used to connect the various levels of the building and improve accessibility. in the same way, communication of museums are increasingly similar to those used by big fashion names for their outlets. a museum shop is vital in contributing towards the success of a museum, because the shopping experience enhances the visiting experience and, when a visit ends with a purchase, this experience is extended and over time becomes a memory and an emotion. moreover, shopping is no longer simply aimed at the purchase, but is more and more frequently a form of communication and entertainment. nowadays, the pleasure of shopping prevails over the pleasure of consumption and the recreational dimension of shopping is becoming an increasingly emotional and cultural practice. the type of purchase that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includes an extremely playful and entertaining experiential approach. in many cases the act of going to the shops has overtaken the pleasure of consumption and this highlights the recreational value of making purchases and window shopping. retail spaces are therefore architectures conceived to be suitably lit, so that they can enhance the value of the items on display and protect them from disrepair. museums are exactly the same. on closer inspection, then, contemporary commercial and display spaces employ light as 17th century Flemish painters did: creating a rarefied and silent environment to frame everyday objects and gestures and sublimate them with the grace and enchantment of the lighting atmosphere. if we look carefully at a work such as vermeer’s the milkmaid, for example, it is evident how the sunlight from the window on the left illuminates a bare domestic interior whose modesty is increased by a broken pane which, letting a stronger ray filter in, lightens the woman’s starched headgear. the observer’s eye is irresistibly drawn by that luminous point which magically marks the beginning of a story comprised of colour. a still life which, thanks to the vitality of that light through a broken window, is suspended in time and consigned to eternity. because light is life. communication, shared language, makes us see and learn, revealing forms, surfaces and colours of landscapes, cities, buildings, interiors and the objects contained therein, informing and educating our individual perception. there is no visible form without light, which therefore conditions the way in which we see and feel our world. so especially in commercial and display places, light defines image, tonality, texture and details, those features that allow us to discover and understand what is on show, grasping their distinctive differences, and urge us to perceive in the most appropriate way an object on sale or an artwork on show, to appreciate them, nourishing dreams and desires. because we dream in the dark, but live in the light.





salon le chocolat, dubai

progetto project: annamaria giangrasso
luogo location: city walk 2, dubai
committente client: meraas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lg studio - davide orsi
rivenditore Viabizzuno retailer: vbomedioriente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sabrina canciali, s.canciali@viabizzuno.com
fotografia photography: UpO Viabizzuno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men sole

제과점을 아트 갤러리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초콜릿 시식을 다중 감각적 경험으로 변신시키고, 조명 시스템을 실제 보석 상자로 바꾸어 보십시오: 두바이의 부띠끄 르 쇼콜라(boutique le chocolat)에서는 실제로 이 목표들이 건축가 안나마리아 잔그라소(Annamaria Giangrasso)와 루미에르(lumière) 스튜디오 그리고 루미에르 그룹 및 비아비주노(Viabizzuno)에 의해 실현되었다. '두바이 플랜 2021'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긍정적인 풍요로움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 도시 도보 쇼핑물 프로젝트는 1 년도 채 안되어 완성되었다. 이 초콜릿 기념 행사는 지능형 조명 시스템 고안과 함께 고급 부띠끄의 매력과 현대 박물관의 우아함 사이에 존재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초콜릿 브랜드를 소개하기 위한 모든 세부 사항이 반영되었다. 조명은 첫 번째로, 우리가 공간을 발견하도록 안내하며, 우리를 매장 안으로 초대하여, 공간을 어루만지며 퍼지는 조명을 따라 출발하는 가상의 동선을 밝으며 방문객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방문자들의 눈은 주변으로 점차 번져가는 조명에 의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발견을 하는 데에 집중된다. 그리고 이 귀족 초콜릿의 창작품들에 대한 목상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들이 조성된다. 설치 시스템 men sole Viabizzuno는 세계 최고로 선택된 각각의 초콜렛을 강조하는 정면 조명과, 깊이와 입체감을 더하는 배경 조명을 사용하여 디스플레이와 조명을 한번에 커버했다: 극장 무대와 같이 전시된 패키지는 정교한 별이 되어 빛나고 바디감과 볼륨감을 얻게 된다. 이 조명 시스템의 직립 적원과 추가 스위치-온으로 케이블 연결 그리고, 뛰어난 시스템 유연성 덕분에 어떠한 종류의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에도 매우 다양한 조명 선반 구성을 만들 수 있다.

raise a confectionery boutique to the level of an art gallery, transform a chocolate tasting into a multi-sensorial experience, turn a lighting system into an actual jewel box of light: at the boutique le chocolat in dubai, this objective was achieved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architect annamaria giangrasso, lumière studio, lumière group and Viabizzuno. in perfect harmony with 'dubai plan 2021', which aims to promote projects for positive enrichment of the city, the project in the city walk shopping mall was completed in less than a year. the celebration of chocolate suspended between the fascination of a luxury boutique and the elegance of a contemporary museum, with the devising of an intelligent lighting system, bespoke in every detail at the service of presenting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brands of chocolate. the light guides us first to discovery of the space and subsequently to the products in an imaginary itinerary that sets out from a diffused lighting which caresses the space, inviting us to enter. the visitor's eyes are then drawn to a detailed discovery of the products by a light that becomes increasingly suffused in the environment, to create ideal conditions for contemplation of the precious creations of maîtres chocolatiers. the furnishing system men sole Viabizzuno is at once display and illumination, with a frontal light that emphasises each of the chocolates selected from the world's best, and a lighting of the backdrop which adds depth and three-dimensionality: as on a theatre stage, the packages on display become sophisticated stars, taking on body and volume. the electrified uprights, cabled with different switch-on, ensure great system flexibility and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creating increasingly diverse luminous shelf configurations in backup to every kind of display requir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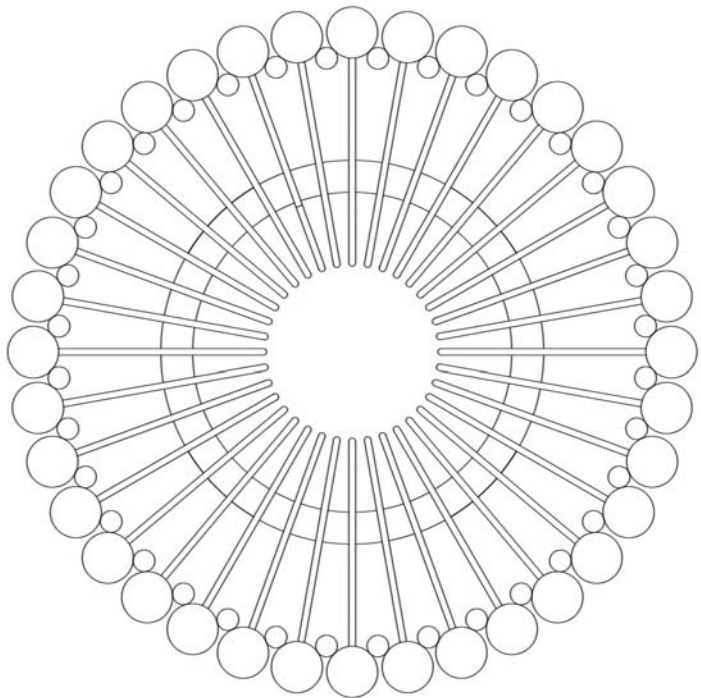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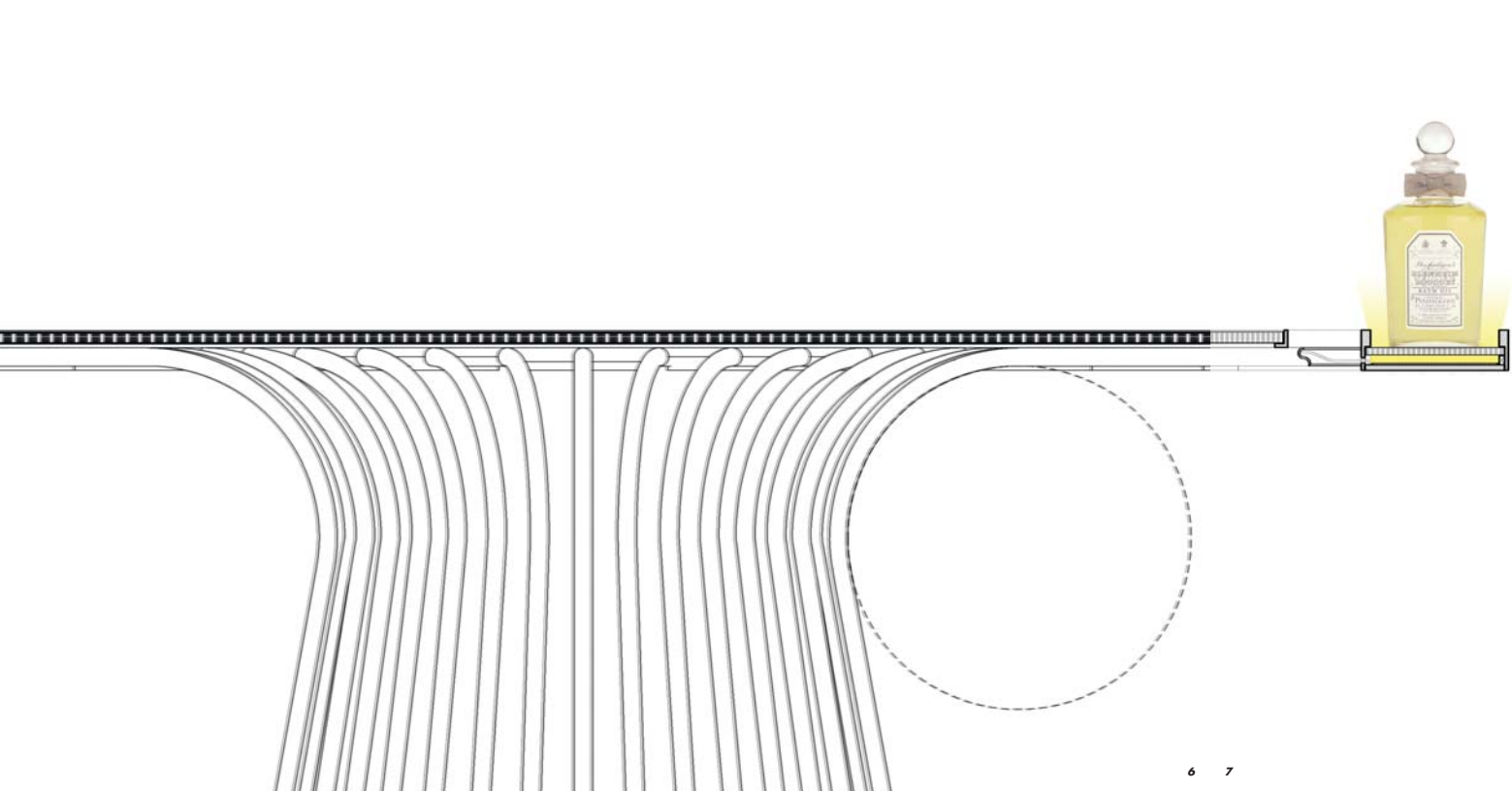


penhaligon's, rockfeller new york

progetto project: al-jawad pike
responsabile del progetto project manager: k2 consultancy
luogo location: rockefeller, wtc (new york);
shorthills (new jersey), rodeo drive (los angeles);
regent street, canary wharf, covent garden (london);
stanford, westfield (san francisco); honolulu (hawaii),
tsum (russia), doha (qatar), ion (singapore)
committente client: penhaligon's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jonathan morrish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n55 sospensione ceiling
displei led
13° angolo, libreria library
13x8, linea di luce tavolo table
porta profumi perfume container table
mensole ovali luminose luminous oval shelves



알-자와드 파이크(Al-jawadpike)와 펜할리곤(Penhaligon)의 콜라보레이션은 201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건축가 알-자와드 파이크는 향수의 화학적 특성과 펜할리곤이라는 향수 브랜드의 유구한 역사를 부각시키는 컨셉으로 레젠트거리의 매장 원도우를 위한 디자인 컨테스트에서 우승하게 됐을 때이다. 이후 컨셉스토어에 위한 그의 제안은 런던 및 전세계의 새로운 모든 매장을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로 채택되었다. 펜할리곤과 같은 오랜 역사를 가진 중요한 영국 브랜드와 창립 145 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 협업의 기회는 큰 도전이었다. 건축가들은 세인트제임스 거리에 위치한 원래 매장의 아카이브 사진에서 영감을 얻어 브랜드의 정교함을 나타내는 미장센 안에서, 조명이 근본적인 역할을 하는 세련되고 우아한 공간을 탄생시켰다. 일부 설치 요소는 전용 조명과 부드러운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 옛것으로 돌아가 가볍게 통합하는 느낌으로 디자인 되었다: Led 광원을 감춘 중앙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인해, 향수들의 각각 개별 지지 요소들은 마치 매장의 중앙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완벽하게 통합되었다. 영국제 목재 판넬을 활용하여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방은 공간을 연속적으로 감싸도록 고안된 벽-컨테이너에 의해 빛이 완벽하게 통합된 곳으로, 정확하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각 선반을 비춘다. 가구들과 같은 재질인 유리와 황동으로 된 장식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빛을 비추는 반면, 조명 설계 완료시 제품 조명은 공간을 구분하고 특징있게 만드는 부드러운 천장 간접 조명에 의해 지원을 받게된다. 이 조명들은 동적 프로펠러를 사용하였으며, CRI (Color Rendering Index)가 98로 14+1 샘플 컬러를 참조하는 n55 서스펜션 조명 설치 기구이며, 직경 65mm에 Led는 300VbK로,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채도가 높은 red 샘플에 있어서 높은 조명 값을 공급할 수 있다. 건축가들이 이 환경을 위해 디자인한 특수 처리된 봉규산 유리는 이제는 이 향수 브랜드의 인지도와 우아함에 관련된 하나의 요소가 되었고, 모든 매장의 컨셉에 동일하게 설치되고 있다.



collaboration between al-jawadpiki and penhaligon dates to august 2014 when the architect won the design competition for the shop window in regent street with a concept that drew on the brand's rich history and the chemistry of perfumery. subsequently the proposals for the concept store became the global project for all the new outlets, in london and worldwide. the chance of collaborating with an important english brand with a history as long as penhaligon's, on the occasion of its 145th anniversary, was a great challenge: the architects took inspiration from archive photos of the original shop in st james's street to create a refined and elegant space that fully respected the brand's tradition but with a topical approach in which light plays a fundamental role in the mise-en-scène of the brand's sophistication. some of the furnishing elements were designed by harking back to the originals and lightly integrating them with a dedicated and soft lighting: as with the central display table where the led sources are concealed, perfectly integrated into each individual support element of the fragrances which seem to dance in the centre of the shop. taking english timber panelled rooms as a reference, wall-containers were created that envelop the space in a continuous manner where the light is perfectly integrated to illuminate each shelf in a precise and dedicated way. in completion of the lighting design, illumination of the products is backed up by a soft indirect ceiling light that delimits and characterises the space, while decorative lamps in glass and brass, the same material as the furnishings, descend from above.these are n55 suspension light fittings with dynamic propeller, 65 mm diameter and led 3000 VbK, with CRI (Colour Rendering Index) equal to 98, with reference to 14+1 sample colours, and therefore capable of supplying a high value, especially in the saturated red sample which is usually the most critical. the special borosilicate glass, designed for the occasion by the architects, has now become an element of brand recognisability and elegance, recurrent in the concept of all the shops.





selfridges, london

progetto project: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luogo location: london
committente client: selfridges retail ltd.
area area: 5.000 mq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UpO Viabizzuno
rivenditore retailer: Viabizzuno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jonathan morrish, j.morrish@viabizzuno.com
fotografia photography: lewis ronald for selfridges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eco plafone orientabile eco ceiling adjustable
selfri

런던 셀프리지스의 동쪽에 위치한 옥스포드 거리 매장의 액세서리 홀은 세 개의 다른 건물들과 연결된다: 클래식한 동관 빌딩과,

서머셋 거리 링크 빌딩, 그리고 SWOD 빌딩. 새로운 액세서리 홀은 최고의 런던 매장을 위한 대형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일부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 방면에 걸쳐 개발 진행될 것이다. 기본 목적은 듀크 거리 전망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1 층을 단일한 구조로

만들어서 내부 순환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쪽 입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 새로운 연결 방식은 특별별로

건축 요소를 나누어 이 요소들을 구조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단일한 정체성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방향에서 이 공간을 감싸고 퍼지는 간접 조명은 가장기본적인역할을 하게 된다. 기둥과 코퍼 천장이라는 고전적인 요소들은,

공간의 높이를 강조하기 위해 위쪽으로 비춰지는 이중 발광 조명에 의해 빛을 받아 오팔 보울 디퓨저라는 도구에 의해 빛이

퍼져 나가는 구체의 천장에서 그 형태를 찾는다. 이 우아한 서스펜션 조명 설치로 인해 1920년대의 클래식한 빌딩의 원래

조명 디자인을 재해석할 수 있으며, 방문객들은 단순히 매장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건축과 명품의 위대한 성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런던에 위치하는 이 상업적인 플래그쉽 매장 내의 상품과 브랜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한

조명 모형을 시도해 보았고, Viabizzuno의 기술적 성능이 만들어낸 최대의 광질을 보장하는 Viabizzuno eco 스팟 투광

조명을 선택하게 되었다.이 조명은 광학체(10°, 25°, 40°)를 교체 가능하다는 측면과 색채값 측면에서 볼 때, 고객의 동선과

공유 공간 그리고 전시 코너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전체를 조화롭게 흐르는 조명의 조건을 충족시킨다.

SWOD 빌딩 부분의 오프닝은 액세서리 홀 첫 번째 단계의 완성을 의미하며 전체 프로젝트는 2018년 안에 완공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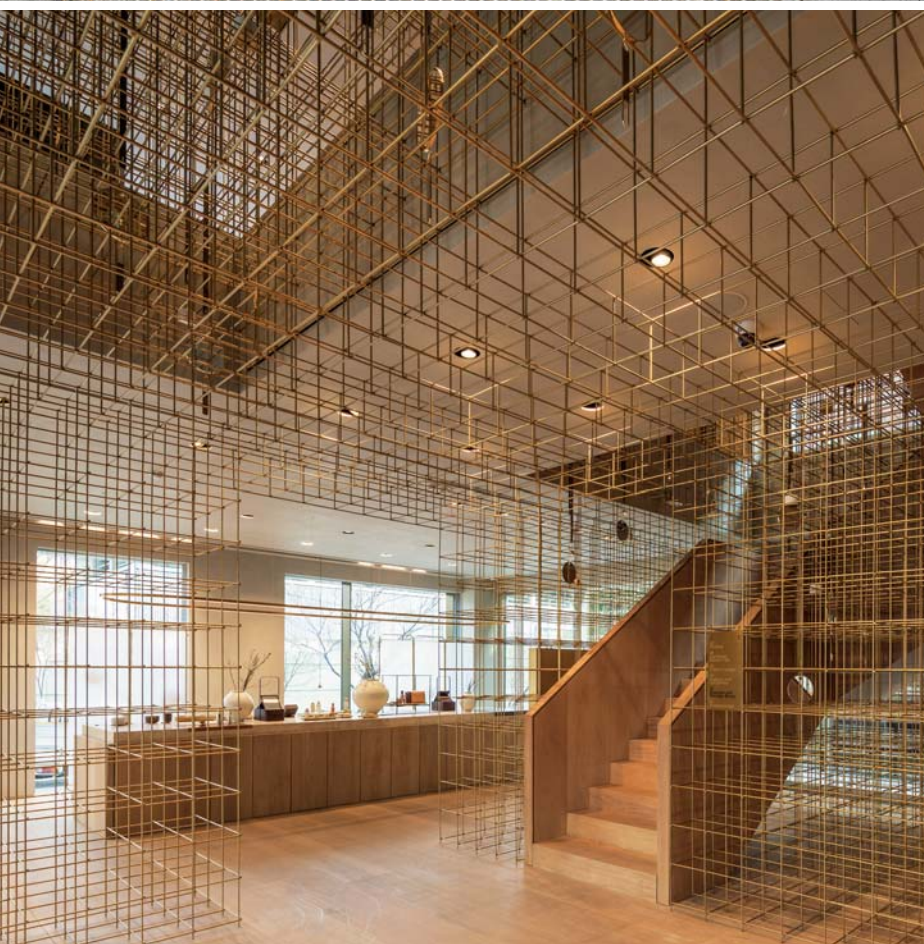
located in the east side of the selfridges oxford street shop, the accessories hall links three different buildings: the classic east building, the somerset street link building and the swod building. the new accessories hall is part of a larger redesign project for the great london store, and for this reason will be developed over different phases. a fundamental aspect is transformation of the prospect over duke street, while to the east a new entrance will be opened which will transform internal circulation by creating a single ground floor. the new connection offers the chance to define a unitary identity by means of a connective structure comprising a hierarchy of architectonic elements. in this sense lighting too plays a fundamental role, with a diffused and indirect light which envelops the space in all directions. the classical language of the columns and coffered ceilings finds form in the luminous ceiling spheres with a twofold emission of light, upwards to emphasise the height of the space, and diffused by means of an opal bowl diffuser. these elegant suspension light fittings, a re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lighting design of the 1920s classic building, contribute to the perception of monumentality and spatiality, giving the visitor the sensation of being in a great temple of architecture and luxury and not simply in a shop.

to highlight the products and brands in this commercial flagship of the city, after innumerable mock-ups we chose, due to its technical performance, the Viabizzuno eco spot floodlight which ensures maximum light quality in terms of chromatic yield and the possibility of interchangeable optics (10°, 25°, 40°) to meet the lighting needs of a space where itineraries, shared areas and display corners blend into a single, flowing and harmonious whole. inauguration of the swod building part marks comple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accessories hall, while the whole project should be finished in 2018.





Sulwha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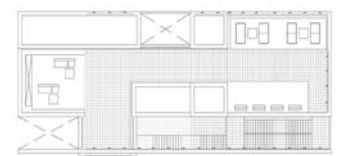
sulwhasoo, seoul

progetto project: neri&hu design
responsabile del progetto project manager: lyndon neri, rossana hu
collaboratori collaborators: anne-charlotte wiklander (associate in charge)
 sela lim, yinan li, kailun sun (design)
 brian lo, nicolas fardet (product design)
 christine neri, haiou xin, litten poeng (graphic design)
luogo location: seoul
committente client: amore pacific
superficie area: 1.949 mq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neri&hu design, mario nanni
rivenditore Viabizzuno retailer: samjin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Viabizzuno inshanghai, luca chinello, l.chinello@viabizzuno.com
fotografia photography: pedro pegenaute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n55 track, spot, plafone ceiling
 094 system
 microtraccia
 cubo medium
 c1, c2, c2 ip68
 displei led
 arco led
 13x8
 m4
 fi50
 sul
 sole
 va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등불은 아시아 역사 속에서 문화적이며 신화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등불은 여정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어둠 속에서 사람들을 올라온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였다. Neri&Hu는 아시아 시장의 선도적인 코스메틱 회사인 설화수 한국 서울 플래그십 매장 5층 건물을 바로 이 컨셉으로 리모델링하였다. 이 브랜드의 기원을 기념하기 위해 Neri&Hu는 아시아 문화와 전통에 대한 풍부한 배경을 활용하여 고객이 설화수 철학의 뿌리에서 아시아의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Neri&Hu 건축과 Viabizzuno의 조명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는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객의 관심을 끌어내는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하나의 공간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 경험은 고객의 마음 속에 강한 인상을 남기며 고객이 이동하는 동안 전체 경로를 따라 계속됨과 동시에 방문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 곳에서 등불의 개념은 공간 전체 표면을 덮어 둘러싸은 황동 구조물로 변화되어 방문객을 안내하는 동안 연속성을 생성하고, 매장의 다양한 공간과 상호 공간과 상호 작용하도록 고객들을 초대하고, 이 유연한 구조물에서 뻗어나온 지붕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담아내며 1층부터 옥상의 테라스까지 아우른다. 이 조명 프로젝트는 상품과 청동 구조물에 동시에 깊이를 부여하여 매혹적으로 빛내는 시도를 하였다: 빛을 전달하는 원통형 부품 덕분에 구조물은 광원으로도 작용하여 외관상으로는 조명이기 구조물로 녹아들어 보이지 않게 되어 그것의 시작이나 끝을 찾아볼 수 없다. Viabizzuno가 특별히 디자인하고 만든 보이지 않는 궤도를 통해 Sul Sole Va 램프가 커진다; 이것은 유리, 가죽, 청동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미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가진 조명 기구의 새로운 제품군으로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가들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그 결과, Viabizzuno의 가죽 뿐 아니라 황동을 다루는 전문 기술의 결과물인 장인이 직접 제작하는 값진 조명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청동의 따뜻한 색상을 강조하기 위해 이 모듈러 구조물 조명이 2700K led 광원으로 구현되는 동안, 주변 조명은 3000K의 중성 색온도를 사용한다. 3000VbK의 조명의 콘트라스트 덕분에 채도가 높거나 채도가 약간 높은 색상을 포함하는 99가지 컬러 샘플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인 TM-30(IES Method for Evaluating Light Source Color Rendition)척도로 Rg 값이 103(gamut index)이고 Rf 값이 96(fidelity index)인 화이트 톤에서 실제 상품은 마치 귀한 보석처럼 돋보이게 된다. 주변광 및 상품광과 같은 n55 유연 천장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해, 프로펠러와 광학 장치는 교환 가능하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능이 보장되며, 파워와 조명 빔은 최종 단계인 섬세한 미세 조정으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것으로 독특하고 세련된 뷰티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디스플레이 요구 사항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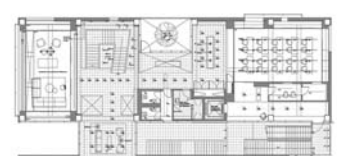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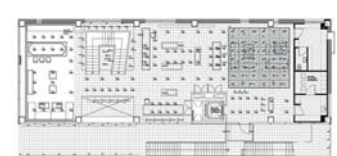
p5



p4



p3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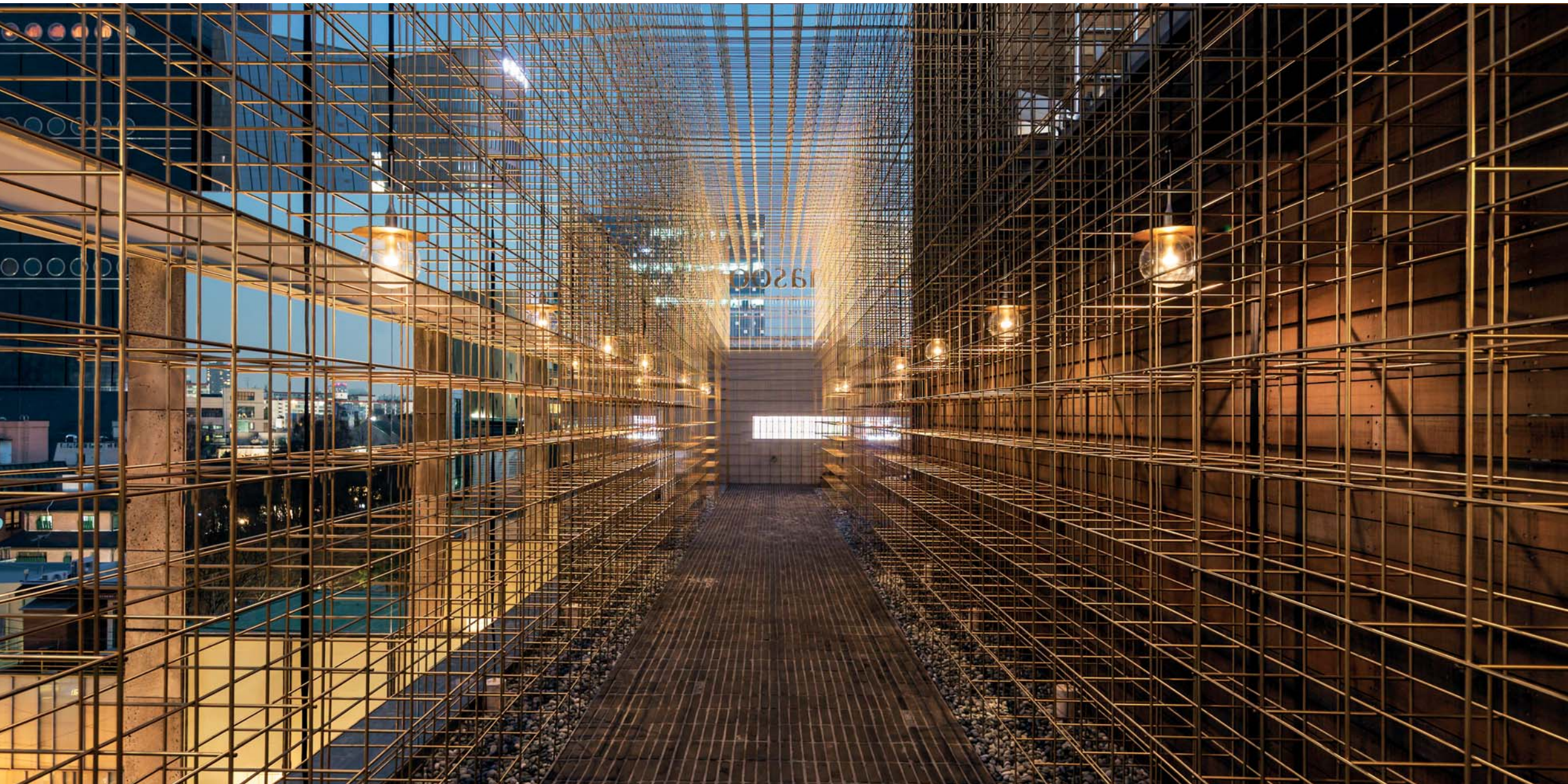


p1



p0

since the beginning of times, lanterns have had a literary and mythological meaning of great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asia. they are the guides in the dark that point you to the right path, marking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the journey. neri&hu adopted this concept in restructuring a five-story building in seoul, south korea, in the sulwhasoo flagship store, a leading cosmetic company in the asian market. to celebrate the brand roots, neri&hu developed a project rich with references to the culture and traditions of asia, allowing customers to discover the wealth of asian wisdom that is at the roots of the sulwhasoo philosophy. the synergy between the neri&hu architecture and Viabizzuno's light created a space that involves all senses, to capture the attention of customers from the initial moment they cross the threshold of the building. the experience then continues along the entire path, leaving a strong imprint in the customer's mind, long after their visit. the concept of the lantern is translated into an enveloping brass structure that covers the entire surface of the space, creating continuity while guiding the visitors, inviting them to interact with the various areas of the store, rising from the ground up to the terrace at the top, where the city is framed by the offshoots of the supple structure that here turns into a roof. the challenge of the light project was to illuminate at the same time the products and brass structure, giving it depth and magic: apparently without beginning or end, it also acts as a light source, thanks to electrified tubular elements that transmit light, while remaining invisible and blending into the structure. through this invisible track, specially designed and manufactured by Viabizzuno, sul sole va lamps are powered; it is a new family of lighting fixtures made of glass, leather and brass, designed by the architects with different aesthetic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to meet the special needs of the display. the result is the creation of precious hand-crafted light fittings, fruit of Viabizzuno's expert work in brass as well as leather. while the illumination of the modular structure is achieved with 2700K led sources, to emphasize the warm colors of brass, ambient lighting has a 3000K neutral color temperature. the actual products instead stand out as precious gems thanks to the contrast of 3000VbK light, in white tones of the highest quality with an Rg value of 103 (gamut index) and an Rf equal to 96 (fidelity index) in the TM-30 (IES Method for Evaluating Light Source Color Rendition) scale, a system based on 99 color samples, including saturated and slightly saturated colors. thanks to the use of n55 flexible ceiling system as ambient and product light, the possibility of interchanging propellers and optics is guaranteed until the very last moment, redefining power and light beam in the delicate fine-tuning final stages of the project. this makes it possible to fully meet all the display requirements needed to tell the story of unique and sophisticated beauty products.





sul



sole



va

aishti foundation, beirut

progetto project: adjaye associates
luogo location: beirut
committente client: tony salamé
superficie area: 22.500 mq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UpO Viabizzuno
rivenditore Viabizzuno retailer: ariss lumiere group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vbomedioriente
fotografia photography: guillaume ziccarelli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094
eco system

아이슈티(Aishti) 재단은 패션 및 의류 전문으로,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 부티크 매장의 쇼케이스인 베이루트의 중심부에 위치한 35.000 평방 미터의 아이슈티 쇼핑몰이 이곳 소속이다. 이 복합 단지는 또한 레바논 기업가 토니 살로메이(Tony salamé) 컬렉션을 전시하는 갤러리를 갖추고 있다. 이 혁신적인 공간은 생기있는 에너지를 최근 점점 국제 예술계의 관심을 더욱더 받고 있는 도시인 베이루트에 나누어 주도록 설계되었다. 쇼핑과 예술이 특별하게 융합되기 시작했고, 쇼핑과 예술이라는 대조되는 두 세계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디자이너들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 유형을 창조해내야만 했다. 이 프로젝트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유연성이란 다양한 공간에 각각 접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각 층의 전체 표면이 하나의 거대한 공간에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왜 문과 벽과 파티션들이 거의 모두 제거되거나 슬라이딩 식으로 숨겨지고, 잠재적이고 혁신적인 내부 레이아웃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준다. 조명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는 전장을 설계하는 기술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어 094 조명이 설치된 위치와 같은 곳에 필요한 유연성을 보장한다. 이로써 순서대로 정리된 공간을 보는 시각을 향상시키고, 상세한 건축 솔루션과 자료에 따라서 공간들을 정리하여 전체 프로젝트는 하나의 동질적인 언어로 통합된다. eco mini 스포트라이트는 채택된 조명 장치 중 유일하게 단독으로 모든 프로젝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킨다. 이 조명 장치는 소형이기 때문에 작업 설치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또한, eco mini는 색채 렌더링이 높은 광원을 사용하여 예술 작품과 같은 고품질의 상업 제품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 필요한 적합한 광질을 보장해 준다. 이 장치는 현대 기술로 구사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최저 수준의 잠재 손상 요인 0.150 mW/lm이 특징으로 박물관 설치에 이상적이다.(태양광 또는 전통적인 할로겐 광원은 75 mW/lm으로 Viabizzuno가 개발한 led 광원 장치보다 500배 이상 높은손상율을 가지고 있다)

the aïshti foundation is part of a 35.000 sq.m shopping mall situated in the heart of beirut, a showcase for boutiques of leading international designer brands that specialise in fashion and clothes. the complex also features an art gallery that exhibits works from the lebanese entrepreneur tony salamé’s collection. this innovative space is designed to inject vital energy into a region that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focus of the international artistic community’s interest in recent years. the unusual blend of shopping and art has required designers to imagine an utterly new spatial type created to converge the often contrasting needs of these two worlds. one of the project’s priorities was the creation of a building that could offer the utmost flexibility with separate access to the various areas or, when required, even link up the entire surface of the individual levels into a single large space. this explains why doors, walls and partitions can almost all be either removed or are sliding and adaptable to potential innovative internal layouts. the light engineering project ensures the flexibility required for such a location with 094 system fittings to create technical grooves that design the ceiling, enhancing the perspective of spaces organised in sequence, and arranging, along with the detailed architectural solutions and materials, the entire project into a single homogeneous language. the eco mini spotlight is the only light fitting adopted, which alone has met all project requirements. its small size allows it to be freely directed without intruding. moreover, eco mini also features led sources that have a high chromatic rendering, thus ensuring the appropriate quality of light required to emphasise exclusive commercial products, such as works of art. this light fitting is the ideal choice for museum installations since it is characterised by a led source with potential damaging factor 0.150 mW/lm, one of the lowest levels achieved by modern technology (consider that the sun or a traditional halogen source have a value in excess of 75 mW/lm, which is 500-fold higher than Viabizzuno led sources).



lumière! l’invenzione del cinematografo, bologna

progetto project: gian luca farinelli, cineteca di bologna
a cura di curated by: thierry frémaux, istituto lumière di lionne
in collaborazione con in collaboration with:
museo nazionale del cinema di torino e cinémathèque royale de belgique
luogo location: sottopasso di piazza re enzo, bologna
periodo period: 25 giugno 2016 - 22 gennaio 2017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mario nanni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maicol fedrigo, m.fedrigo@viabizzuno.com
fotografia photography: lorenzo burlando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n55 plafone ceiling
n55 track
13° angolo
tubino
cubo 15
c2 led
arco led
mensolona
sempreinfila

30 회를 맞이한 ‘Il cinema ritrovato(영화의 재발견)’ 축제의 특별한 행사로

삶의 숨결을 움직이는 사진으로 만들고 동시에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까지 접수한 프랑스 형제의 모험을 다룬 ‘뤼미에르!

영화의 발명’이라는 전시를 개최한다. 뤼미에르는 마지막 발명가이자 동시에 최초의 영화 작가이자 영화 프로그래머였다.

이들은 움직이는 사진 발명 뿐 아니라 최초의 컬러 사진인 오토 크롬과 3D 영상을 포함한 다수의 비상한 특허들을 발명하였다.

티에리 프레모(Thierry Frémaux)가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 전시의 섹션들은 영화 발명을 이끌고 영화 산업의 발전을 주도한

기술적인 진화 및 유료 영화 상영의 데뷔로 야기된 루미에르 집안의 문제와 이 프랑스 형제의 전멸된 필모그라피의 큰 부분을

모아 전세계에 후속 영화를 배포하는 것과 관련된 루미에르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겹치고 뒤섞는다. 볼로냐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 행사가 열리는 공간은 대중들에게 오랜 시간동안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으며, 지금은 현재 이 행사를 위해 재개방되었다.

이번 조명 설치는 방문자들을 이 매혹적인 세계로 이끄는 빛으로 사용되고 전시의 환상적이고 실증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조명과 전시 디자인은 모든 작품을 조명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개방형 전시 케이스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이로써 영화 역사의 필수 요소와 같은 영화 이야기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것들은 Viabizzuno가 이번 행사를 위해 맞춤

설계한 특별한 케이스이다. 13° 광각 평행 육면체들은 유연한 선형 조명 시스템으로, 최고의 사이즈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탠드 디자인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부드러운 조명이 방해 받지 않고 쇼 케이스의 내부를 비추고 하우징의 밝기를 유지한다.

또 이시스템의기술적이며기능적인특징은최고의유연성을가지고있어디자인에시스템을맞추는방법으로중개자와같은역할을

한다:바로 mensolona 조명 시스템. 벽에 고정 된 압출 성형된 알루미늄 장치로, 이는 스탠드를 배치하는데 있어 궁극적인 자유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 시스템 역할을 한다. 쇼케이스의 전력화 및 지원처럼 적용된 이와 같은 경우에, mensolona는 이 시스템에

내장된 전기로 움직이는 4 가지 추적 장치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액세서리로 인해 여러 방법으로 응용되어 사용될 수 있다.

the special event of the 30th ‘il cinema ritrovato’ festival is the exhibit ‘lumière! the invention of cinema’

covers the adventures of an entire french family that made moving pictures the breath of life and, last but not

least, a profitable entrepreneurial business. the lumières were the last inventors and at the same time the first

authors and programmers of cinema, and not only the invention of moving pictures, but also an extraordinary

gamut of patents is owed to them, including the autochromes - the first colour photographs - and 3d projection.

the sections of the exhibit curated by thierry fremaux overlap and intertwine the technological evolution that leads

to the invention of cinema and its industrial developments to the lumière family matters by covering the débuts of

the paid showings and the subsequent distribution of films around the world by gathering together a large part of

the exterminated filmography of the french brothers. hosted inside a space in the heart of bologna that has been

inaccessible to the public for a long time and is now re-opened for this occasion, the installation makes use of light

to lead the visitor in this fascinating world and to define the magical and empirical atmosphere of the exhibit. the

light and exhibit design entails using open display cabinets where every work can be isolated by illuminating it

and therefore telling its story lik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history of cinema. these are ideal and spatial cases

made to measure by Viabizzuno for this event. these 13° angolo parallelepipeds with luminous profile are a flexible

linear light system that offers ultimate personalisation of the size so it is perfectly adaptable to the stand’s design.

a soft light turns toward the interior of the showcase without disturbing, retaining the lightness of the hous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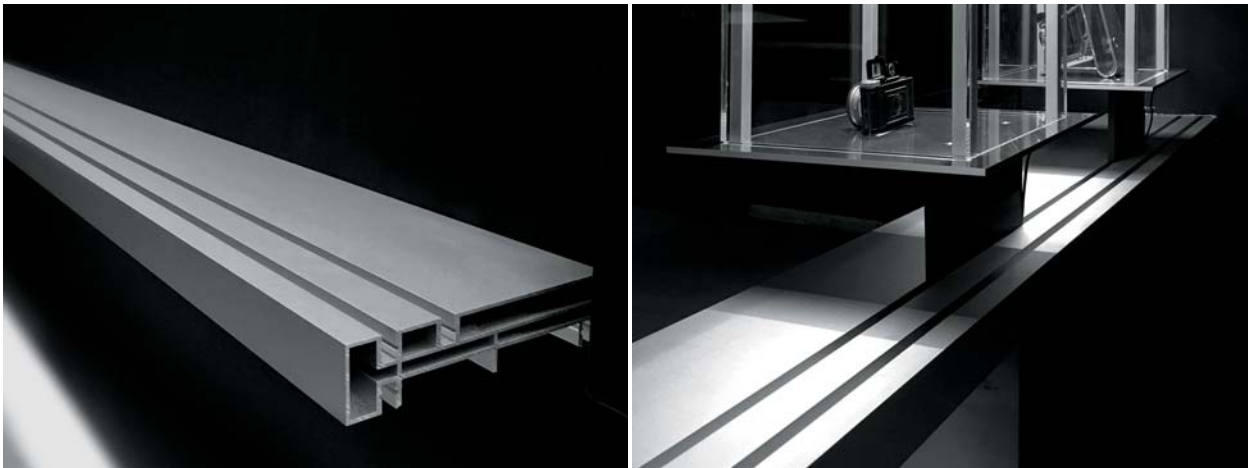
another technical and functional system acts as an intermediary by adapting itself to the design with its extreme flexibility:

mensolona. this extruded aluminium element fixed to the wall serves as a display system that offers ultimate freedom

in laying out the stand. in this case applied as the support and electrification of the showcases, it can be used in a

multitude of applications thanks to the four electrified chases it contains and the many accessories making up the system.







museo della guerra e della memoria di beirut

progetto project: youssef haidar
luogo location: beirut
committente client: municipalit  di beirut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maurice asso
rivenditore Viabizzuno retailer: ariss lumiere group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vbomedioriente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catena parete wall
displei led
m4 led
p1 parete wall
13x8

1924년부터 1936년 사이에, 소데코의 교차로에 가장 높은 주거 단지가 세워졌다. 바라캇(Barakat) 건물로, 2개의 분리된 비대칭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건물은 3층으로 구성되어, 길모퉁이로 연결된 일반적인 1층 입구를 가지고 있다. 정교하게 자리잡은 아치로 덮인 두 구조물 사이의 빈 공간으로 인해 6개의 500 평방미터 아파트 내 모든 방에서 거리 전망이 가능한 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내부 인테리어는 그 건축물만큼이나 매력적이다. 아르누보 스타일로 천장은 페인트 되었고; 아르데코 스타일의 바닥은 색감 있는 대리석 타일 패턴으로 덮여졌다. 목조 프레임, 호화로운 문, 흐르는 듯한 아치, 오리엔탈 모티브들로 꾸며진 이곳은 진보적인 시대를 대표하는 집안들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15년 간의 내전을 겪은 베이루트라는 도시는 녹색선에 의해 복잡하게 동서로 나뉘었다. 훌륭한 이 건축물은 내전에 악용되었고, 특권 계층의 보석과 같은 이 건물은 자격병들에 의해 전략적 살인 무기로 바뀌었다. 오늘날에서바라캇건물은도시최초의다각적문화센터,박물관및기념공간으로사용되고있다.-비에트베이루트(BeitBeirut)-2016년중동조명의'올해최고의공공조명프로젝트'를수상했다. 건물에 들어서면, 기존 구조가 확장된 중앙 공간을 발견하게 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시를 위해 여기에 다양한 조명 레이아웃이 만들어졌다. 원형 채광창의 중심을 회전하는 트랙 프로젝트는 강조 조명 & 주변 조명을 제공한다. 바닥을 가로질러 가는 미묘한 조명 신호는 수직으로 순환하는 지배적인 램프로 이어지며 전체 층을 통과하며 오래된 구조물을 새로운 구조물과 연결해준다. 건축가 유세프 하이다(Youssef Haidar)는 단절된 확장을 유지함으로써 비전형적인 공허를 격찬했다. 이로 인해, 중심의 아트리움과 채광창이 1층 입구로 들여다 보이고, 그 다음 지하실의 극장이 들여다 보이는 구조를 보인다.아트리움 쪽으로 바로 향하는 3 층의 좁은 빔 프로젝트로 달빛 효과를 상승시켰다. 각 층은 도시의 역사적 에피소드를 나타낸다; 각 층을 걸으면 장면들이 전환함에 따라 방문자들은 감정적 인식을 하게 된다. 우리의 전문 기술은 이러한 다양한 선호 감정 및 다양한 기능에 알맞는 조명을 제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1층은 저격수가 병커를 배치한 곳으로, 그대로 기념 장소로 보존되며 이 장소는 방문자에게 긴장된 정서를 느끼게 한다. 우리는 가천정을 사용하지 않고 이 경험을 미묘하게 각색하는 것을 시도했다. 올라온 바닥을 정리하여 직선형 조명 기구를 집어 넣고, 따뜻한 조명으로 상처 입은 모든 벽과 병커를 닦아냈다. 다른 공간들은 화장실의 변기와 주방의 싱크대의 잔재들 위에 희석된 백열 전구가 설치되었다. 반은 복원되고 반은 보존된 2 층에 도착하면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짐을 느낀다. 천장을 따라 비춰지지는 대들보는 간접 조명을 사용하여 두 개의 장면을 만들어내고 프로젝트에 따라 보여진다. 첫 번째 장면은 전시와 관련있는 것으로 프로젝트는 베이루트의 삶과 진화된 모습을 묘사하는 수집된 데이터를 공개한다. 두 번째 장면은 민병대가 벽에 남긴 고백 및 보존된 모티브들과 기와들을 강조하여 보여준다. 가천정이 있는 직선형 조명이 내장된 채광창은 3 층을 통해 햇빛이 솟아 오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위에 위치한 옥상의 테라스를 밝게 비추어 준다. Viabizzuno의 설비로 인해 오래된 건축의 정신이 되살아나게 된다. 두 개의 벽에 설치한 쇠창 모양 조명기구 catena가 빔을 환히 밝히며 건물의 메인 입구를 강조해 준다. 정확하게 아치 옆에 서게 되면, 조명들이 바닥부터 지붕까지 부드럽게 뿔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displei led dn35 scomparsa totale 조명 중 어떤 것은 빌딩의 오래된 파이프인 재활용된 금속 튜브 내부에 설치되어 사용되었다. 이것은 1 층 로비 전체와 도서관, 강당 1 및 지하 보관소를 비추는 조명 장치로, 걸어서 설치되도록 만들어졌다. 회반죽 그물망 세트는 조명 장치의 거친 디자인 특성의 일부로 보이게끔 설계되었다. 여러 개의 m4 led 3W, 10°조명은 아치 아래에서 내부 색선 사이의 분리된 윤곽을 강조하고 리터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좁은 빔 p1은 바닥에 구멍을 파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테라스에 기둥들을 강조하기 위해 수정된 장소에 설치되었다. 이 조명 장치는 조도 조절이 가능하여 외부 조명과 대비하여 정확한 양의 빛을 제공할 수 있다. p1 parete는 깨진 계단의 부서진 스텝 사이의 뒷쪽에 감추어져 빛을 낸다. 계단은 저격수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아무도 상층까지 올라가 몸을 보호할 수 없었다. 굉장히 매끄럽고 윤이 나는 13x8는 각 층의 I자 형 대들보의 맨 위에 숨겨져 불의 흔적과 파괴 뿐만 아니라 고대 천장의 오래된 석고의 편안함을 불러오는 기능을 한다. 디밍이 가능한 부드러운 조명으로 오래된 천장을 가볍게 스친다. 진정 아름다운 소형의 13x8 조명은 I형 대들보 안쪽 3cm의 난간 위로 숨겨질 수 있다. 13x8는 또한 지붕 층의 기본 요소였던 지붕 채관 요소에 통합되어 옥상 테라스의 외관 뿐만 아니라 실내 조명을 생성할 수도 있다. 이 조명 기구의 초소형의 사이즈 때문에 아래쪽의 어떤 각도에서도 볼 수 없게 숨길 수 있다. 13x8는 어디든 가져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조명 도구이다. 그리고 p1는 우리의 기술로 옥상에 빛으로 뿌려졌다. 통합된 긴 팔의 p1 프로젝트는 녹색 벽과 강철 벽 그리고 유리 난간 뒤까지 들어왔다. 그 엄청나게 작은 크기와 고출력 및 양질의 빛은 앞으로 레스토랑으로 사용될 공간에 최대의 유연성을 부여하며 다양한 효과로 테라스의 각각의 공간을 비추는 보편적인 광원이 되었다.



throughout 1924-1936, a residential complex was built to dominate sodco’s intersection. barakat building was composed of two separate asymmetrical structures, each three floors, and linked on the street corner by a common ground floor and entrance. the void between its two structures, veiled by delicately perched arches, brought forth a street view to every room in the six 500 sq.m apartments. its interior was as desirable as its architecture. art nouveau claimed the hand painted ceilings; art deco flooded the floors with colored patterns of marble tiles. wooden frames, lavish doors, flowing arches, and oriental motifs were home to families that represented the progressive era. 15 years of civil war landed the complex on the green line that separated east and west beirut. exploited for its remarkable architecture, snipers adopted the elite gem as a strategic weapon to kill. today it stands as the city’s first multifaceted cultural center, museum, and memorial space. - beit beirut - was awarded ‘best public lighting project of the year’ at light middle east 2016. upon entering the building, you’ll notice a central space where the existing structure meets its extension. a versatile lighting layout was created here for the constantly changing exhibitions. track projectors rotating around a circular skylight’s center provide accent & ambient lighting. subtle lighting signals across the floor lead to a dominant ramp circulating vertically, linking the old structures to the new, and every floor in between. architect youssef haidar paid tribute to the atypical void by keeping the extension disconnected. the result, a centered atrium and skylight peering into the ground floor entrance first, then basement’s theater below. with a narrow beam projector on the third floor directed towards the atrium, we enhanced a moonlight effect. each floor serves as an episode of the city’s history; walking through them leaves the visitor emotionally aware of its transition. our expertise came with rendering these different emotions favored, and providing adequate lighting for the different functions. the first floor serves as a memorial, untouched where snipers had positioned their bunkers, means to trigger an uneasy sentiment. our challenge was to subtly dramatize this experience with no false ceiling. we manipulated the raised floors to house linear luminaires, and with warm lighting, washed every scarred wall and bunker. other areas include dimmed incandescent bulbs hanging over remnants of kitchen sinks and toilet seats. half restored, half preserved, a gradual warmth in atmosphere is realized upon arriving on the second floor. beams that run along the ceiling helped create two scenes using indirect light and track projectors. the first related to the exhibition, projectors reveal collected data depicting life and evolution in beirut. second scene’s framing projectors accentuate preserved motifs, tiling, and confessions left on walls by militiamen. with a false ceiling, skylights embedded with directed linear lighting give the impression of sunlight seeping through the third floor, while illuminating the rooftop’s terrace situated above. the spirit of the old architecture is revived with several of Viabizzuno’s fixtures. two wall mounted catena luminaires flood up and accentuate the main entrance of the building. when precisely position next to the arches, they were able to cast a soft wash all the way up to the roof floor. the displei led dn35 scomparsa totale was used inside recycled metal tubes, some from the old pipes of the building, to create a suspended light element that illuminated all the ground floor lobby as well as the library, auditorium 1, and basement archives. the mesh of the plaster kit was kept visible and used as part of the rough design character of the light element. several m4 led 3W, 10° were used under the arches to accentuate and redraw the contour of the internal separation between the internal sections of the museum. narrow beam p1 with a modified base played on the terraces to highlight the columns since digging in the floor was not possible. these were also provided with dimming control to give the exact amount of light in contrast with the exterior lighting. some flood p1 parete were hidden behind the broken steps of the broken staircase to glow from the cracks. the staircase was destroyed by the snipers so nobody can reach the upper floors for their protection. the very sleek 13x8 was hidden on top of the i-beam on every floor to graze the old ceilings with dimmable soft light bringing out the traces of fire, destruction as well as the old gypsum reliefs of the ancient ceilings. the magnificent small size of the 13x8 allowed us to hide it over a ledge of 3cm inside the i-beam, the same 13x8 was integrated in the roof skylight element which was a signature daylight feature of the upper floor allowing us to create a light source for the interior as well as the exterior of the roof terrace. because of its very small size it cannot be seen from any angle above and below. 13x8 was a very handy light tool which we took with us and used all over the place. then p1 topped our story on the roof top. the integrated long arm p1 projector went into the green walls, steel walls and behind the glass balustrades. its significant small size, high power and good light quality made it a universal source that lit up the different areas of the terrace in different effects allowing maximum flexibility for the space that will be used as restaurant in the future.



fondaco dei tedeschi, venezia

progetto project: oma, the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 (aree comuni common areas)

jamie fobert architects (area commerciale retail area)

responsabile del progetto: rem koolhaas, ippolito pestellini laparelli, jamie fobert

collaboratori: francesco moncada, silvia sandor

luogo location: venezia

committente client: edizione s.r.l., dfs lvmh group

superficie: 9.000 mq

progetto di luce light project: UpO Viabizzuno & pjç light studio

responsabile tecnico Viabizzuno technical sales consultant: andrea cinquetti, kurt bruggeman, jonathan morrish

fotografia photography: delfino sisto legnani, marco cappelletti

corpi illuminanti light fittings:

c2 led

sistema 90x45 system

n55 track, vetro sfera oma sphere glass

arco led

cornice led

corrimano in luce 1

cubo bandiera flag

trasparenze bandiera flag, plafone ceiling, incasso recessed

picchetto p1

n55 sospensione suspension, vetro tubolare oma tubular glass

n55 sistema albero shaft system

n55 p.s. orientabile adjustable

n55 plafone ceiling

f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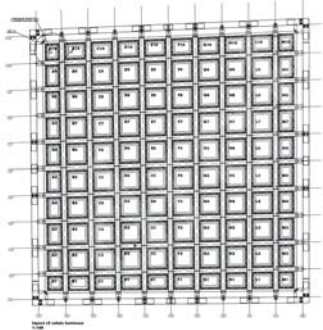


retail project of the y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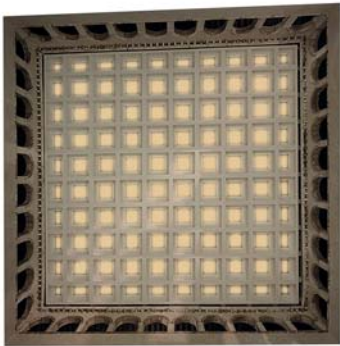
오마(oma) 건축 스튜디오는 16세기 건물인 베니스의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fondaco dei tedeschi)의 복원을 완료하여 9000 평방미터의 공간을 고급 쇼핑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원래 1228년에 세워진 폰다코 데이 테데스키는 리알토 다리 기슭에 위치하는 것으로 베니스의 가장 크고 특색있는 건물 중의 하나이다. 이 건물은 독일 상인들이 물건을 교환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나폴레옹 시대에는 세관 건물, 무솔리니 시대에는 우체국으로 사용되었다. 화재에 의해 두 번이나 파괴된 후 1930년 대에 콘크리트로 완전하게 재건되었고, 폰다코는 5 세기의 건설 기술을 모두 거친 현대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진 역사적 재건축의 표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램 쿨하스(rem koolhaas) 스튜디오는 Viabizzuno 의 조명 설치를 선택하여 모든 공간에 전적으로 작업을 일임했다: 메인 입구에서 기념비적인 중앙 안뜰, 주변을 둘러싼 갤러리, 연결 및 비상 계단, 로지아 스타일 복도 및 석호 도시의 독특한 경치를 제공하는 탁 트인 테라스에 이르기까지. 1200 이상의 n55 시스템 조명 장치를 테크니컬 램프와 함께 각 층의 갤러리에 있는 나무 대들보에 숨겨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옳았다. 또한 n55 시스템 조명 장치를 일반 및 연결 공간에서 장식 램프(오마 스튜디오가 특별히 고안한)와 함께 사용하기로 한 결정 또한 좋은 결정이었다. 다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 시스템 그리고, 교환 가능한 프로펠러와 광학 장치는 건축가, 계약자 및 개장 며칠 전까지 모든 단계에서 매장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켰다. macadam step 1과 동일한 3000K의 색온도는 색채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어, 이러한 차원의 건물에 대한 전례 없는 빛의 품질과 균일성을 제공한다. 폰다코 건물의 중심에 위치한 내부 안뜰은 시내로 개방된 도시적 'campo(캄포; 이탈리아식 마당)'로, 지상에서 18 미터 이상 위에 떨어져 설치된 대형 강철 유리 천장으로 덮여있다. 100개의 천정 고퍼는 400 c2 led와 맞춤형 길이로 제작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은 세 가지의 다른 색 온도를 지닌다 (2700, 3000, 4000K). 필립 스타크(philippe starck)에 의해 설계된 이 미식 레스토랑은 amo 조명 시스템을 사용하여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필립 스타크는 'fontego(폰테고; 폰다코의 이탈리아어 표현)'의 로비 중앙에 높이 조절이 가능한 금속 빔을 자유롭게 배치했고 이곳에는 전통식 투광 조명이 설치되었다: 이 동적인 조명은 대운하의 물에 비치는 햇빛처럼, 빛의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을 강조하여 그림같은 극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원격을 포함하여, 모든 경우 및 이벤트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특정 날짜에 dmx 조도 조절 시스템을 사용하여 무한의 범위로 동적인 조명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러한 복잡한 조명 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 보수를 단순화 할 수 있는 기술적 측면의 해결 방안은, 공간의 단순성과 고전적 측면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시대를 초월한 건축 양식을 존중하는 비상 조명 및 기능적 조명을 제공하기 위해 역사적인 계산을 따른 corrimano in luce 조명 시스템과 같은 선택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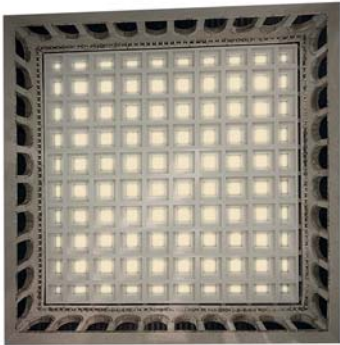
the orna architecture studio has completed the restoration of the fondaco dei tedeschi in venice, a building dating from the 16th century, converting the 9.000 square metres into a luxury shopping area. originally built in 1228, and located at the foot of the rialto bridge, the fondaco dei tedeschi is one of the largest and most distinctive buildings of venice. it was used as a place of exchange for german traders, a customs building at the time of napoleon, a post office during the period of mussolini. destroyed twice by fire and then rebuilt almost completely with concrete in the nineteen thirties, the fondaco is a historic palimpsest of modern substance which has passed through five centuries of construction techniques. for the project, the studio of rem koolhaas has relied entirely on Viabizzuno for the choice of light fittings in all the rooms: from the main entrances to the monumental central courtyard, the perimeter galleries, the connecting and emergency staircases, the loggia and the panoramic terraces offering a unique view over the city of the lagoon. the decision to use more than 1200 n55 system light fittings with a technical lamp, concealed among the wooden beams of the galleries on every floor, and with a decorative lamp (specially designed by the oma studio) in the common and connecting areas, proved to be the right one. the versatility of the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interchanging propellers and optics has made it possible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the architects, contractor and shops in all phases of the site up to a few days before the opening. the colour temperature of 3000K with macadam step equal to one ensures that chromatic consistency is maintained offering a quality of light and uniformity without precedent for a building of these dimensions. the internal courtyard of the fondaco, the very heart of the building, is an urban 'campo' open to the city and covered by a large steel and glass ceiling suspended more than 18 metres from the ground: the 100 ceiling coffers are cabled with 400 c2 led profiles of customised length, each with three different colour temperatures (2700, 3000, 4000K). to create a more intimate ambience for amo, the gourmet restaurant designed by philippe starck freely inserted at the centre of the foyer of the 'fontego' a system of metal beams with adjustable height and motorised floodlights has been installed: its dynamic lighting creates a picturesque theatrical atmosphere with lighting accenting its changing illumination components, like sunbeams reflected in the waters of the grand canal. a dmx dimmer system makes it possible to create an infinite range of different dynamic lighting scenarios throughout the day which can be programmed for every occasion and event, including remotely. these technological aspects, which make it possible to simplify the management and maintenance of such a complex lighting system, are joined by solutions aimed at exalting the classical nature and simplicity of the spaces, such as the choice of corrimano in luce along the historic stairs to provide functional and emergency lighting respecting a timeless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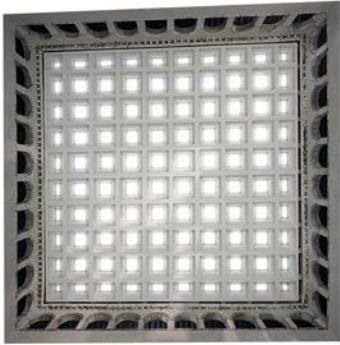
가변 색온도 조명 천장
variable color temperature illuminating ceiling



2700K



3000K



4000K



혼합 색온도
mixed color temperatures





건축가 피터 점쏘(peter zumthor)는 2002년에 노르웨이 관광 코스 계획의 일환으로 알마나유베(allmannajuvet)에 작은

박물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1800년대 후반의 아연 광산 프로젝트로, 점소의 전설적인 완벽주의와 이 곳 고유의

지질학적 어려움 때문에 여러번 수정되어야만 했고, 후에 위치의 형태학에 맞춰 점차적으로 적응시키고 성형했다. 이는

건축 역사상 독특한 결과를 낳았다: 아슬아슬하고 현기증 나는 전망을 부여하는 복잡한 구조 공학 작업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인 광산 상부에 위치한 네 개의 유적은 마치 항상 거기 있었던 고대 구조물 유령을 연상케하는 듯 하다.

아예 관사 건축은 그 형태는 매우 단순하지만 구조가 복잡하여, 조명은 자연 채광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감성적인 동시에

기능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각각의 모든 세부 사항은 여구를 픽업로 했다. 마리오 나니와 이 스위스 거추차기 적쓰는

노르웨이 여사의 하 브루이 관부드름에 의한 기념물 거석에 돌이했다. 관사 자어시 사용해던 정국비으로 씌어지 그대의 여사가

자면 시스템으로 자동문은 닫히지 않음. 배연 전기를 확인한것 이 가운 자면 관리를 확인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전기사

실질 양의 감소에 대한 적응적의 유전, 환경의 편향적인 행위에 전사, 생식 및 LD 감소는 보충책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는

as part of the norwegian tourist routes initiative, in 2002 the architect peter zumthor was asked to build a

small museum in allmannajuvet, in the late 1800s site of a zinc mine. zumthor's legendary perfectionism,

together with the geological difficulties inherent to the site, made it necessary to revise the project several

times, increasingly adapting and molding it to the morphology of the location. the result is certainly

unique to the history of architecture: a complex structural engineering work bestowing a view that is both

breathtaking and dizzying. the four structures positioned above - and yet apart from - the archaeological

mining remains seem to evoke the ghosts of ancient structures, as though they had always been there.

zinc mine architecture is so simple in form and yet so complex in construction, where each and every detail was the

subject of dedicated study and where the lighting needed to be both emotional and functional while remainng in

complete harmony with natural light. mario nanni and the swiss architect agreed on the fact that this monument to the

miners - a piece of norwegian history - was to be illuminated by a light source that had written the history of lighting:

the incandescent light bulb. the difficulty of procuring such light sources, plus the need for ongoing maintenance in a

site where accessibility is arduous, convinced zumthor to choose the new LED technology and, more specifically, to

n55 system. indeed, this solution meets high technological standards, offering light with a quality that reflects that of

the incandescent bulb as closely as possible. the idea of creating, ad hoc, a glass able to diffuse light in this magical

place so intrigued the architect that he designed a new lamp that is now part of the n55 system collection: the pz03.

'my goal was to enable people get out of their cars, to pause a few moments

in a place that imparts a sense of belonging, an awareness of history'. pz

